

# 제주도 방언의 식물이름 연구

강 영 봉\*

목 차	
I. 머리말	D. 지역간의 차이
II. 본 론	E. 문헌어와의 관계
A. 연구사·자료집	III. 마무리
B. 조사방법·조사지역	참고문헌
C. 자료	

## I. 머 리 말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은 濟州島方言의 言語地理學的 접근을 위한 질문지 작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1980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전국 규모의 方言調査와 研究를 목적으로 《韓國方言調査質問紙》<sup>1)</sup>가 작성된 바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현지조사는 조사자의 緣故地나 관심에 따라서 조사항목, 조사절차, 질문법 등이 달랐고, 심지어는 그 구체적인 작업과정을 밝히기를 꺼려온 게 사실이었다. 이런 의미에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

1) 이 질문지는 본책이 495면, 별책부록이 171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항목은 총 1782개로 주항목이 827항, 부수항목이 356항, 보충항목이 603항으로 되어 있다.

서 볼 때 《韓國方言調查質問紙》 출현은 우리 方言學界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작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질문지를 가지고 별도의 개별 지역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서 편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성싶다(물론 이 질문지는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통일을 기하기 위한 의도 밑에 작성된 것으로 육지부는 모르지만 제주도인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가령 제주도를 조사대상으로 삼고서 현지조사를 할 때, 이 질문지 1번 ‘벼’는 조사항목으로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제주도 전역은 그 地表가 透水性이 강한 玄武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水量이 적은 편으로, 주로 밭농사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발표되는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밭농사와 논농사의 비율은 50대 1로 논농사는 아주 미미한 편이고, 또한 어느 일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벼’를 조사항목으로 끼워 놓고 조사 못할 바는 아니나, 조사한다 하여도 얻는 소기의 성과는 그리 크지 못할 것이다.

정신문화연구원에서도 이 질문지를 가지고 조사 착수에 앞서 몇몇 분에 의해 수정·보완할 기회를 마련한 게<sup>2)</sup> 아닌가 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제주도만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지 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역사적·사회적·문화적특이성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방언 분류를 한 학자마다 ‘濟州島方言’이라는 일관된 명칭으로 命名되고 있다.<sup>3)</sup> 이 ‘濟州島方言’이란 명칭은 포괄적 의미에서 매우 타당성 있는 방언구획 명칭이기는

2) 「方言」 5 (19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여기에서는 “한국방언조사질문지의 성격과 수정 방향”에 대한 특집으로 엮여져 있는데 일반(洪允杓), 어휘(沈在箕), 문법(徐禎穆), 음운(宋敏)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있다.

3)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下), pp. 600~665.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放」, pp. 146~172.

崔鶴根(1959); 「國語方言學序說」, p. 155~180.

李基文(1961); 「國語史概說」, p. 179.

金敏洙(1964); 「新國語學」, p. 265.

李崇寧(1967); “韓國方言學史”, 「韓國文化史大系」 5, p. 411.

金亨奎(1975); 「增補 國語學概論」, pp. 200~201.

하지만, 原語民들은 山北과 山南<sup>4)</sup>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하위 방언구획설정을 재고하게 재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구획상으로 단일 방언권으로 묶어서 명명한다 하여 문제될 게 없기는 하지만 좁은 제주도 안에서도 文化行態가 다르고, 신앙권이 다르며, 역사적으로 볼 때 몇 백년간 三懸分立의 시기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산업구조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하여 여러 측면에서 相異性이 발견된다면 마땅히 몇 개의 하위방언권으로 나눠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써 논의대상이 된 식물이름들은 중세국어에서의 위치라든가, 改新이 늦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단 선정하여 본 것이다. 중세국어에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鄉藥救急方》에 나타나는 鄉名들이 제주도 방언형과 비슷하다는 점을 중시한 결과이며, 改新이 늦어졌다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 따라 제한된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이다. 즉, 물고기이름인 경우, 어부들은 일정한 포구를 따라서 이동할뿐더러 조업하는 바다 또한 구분이 되어 있지가 않다. 시장도 한 곳 또는 일정한 곳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자연 언어접촉이 이루어져 언어의 混態相을 보여 주기 십상이다.

이에 따라 우리들은 (i)《제주도방언조사질문지》 작성에 앞선 기초작업으로써 식물이름을 통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ii)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주도방언을 하위방언권으로 구분한 준거를, 개연성이 있긴 하지만 조심스레 제시될 것이다. (iii)마지막으로 《鄉藥救急方》에 나타나는 鄉名 해독과의 상관성을 타진해 보면서 제주도방언의 위상까지도 타진해 보게 될 것이다.

끝으로 조사에 협조해준 光令里, 杏源里 여러 村老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조사에 협력을 아까지 않은 학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

4) 제주도에서는 보통 두 가지 사항에 따라 부르는 그 명칭이 다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으로, 부르나, 문화행태에 따라서는 ‘북제주군’ 대신에 ‘山北’, ‘남제주군’ 대신에 ‘山南’으로 명명되고 있다.

## Ⅱ. 본 론

### A. 연구사·자료집

植物에 대한 연구는 순수 자연과학의 영역에 속한다.

제주도 식물에 대한 연구도 자연과학분야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지금까지 연구도 이 분야에서 행해졌다.

학자들이 제주도 식물에 관심 두게 된 것은, ①우리나라 어느 지방보다도 종류가 다양하다, ②제주도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이 單純孤立峯으로 植物分布帶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 ③특수한 氣候條件에 따라 特産植物이 많다, ④韓半島를 비롯 日本·中國 等地의 植物들이 서로 섞여 植生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sup>5)</sup>

제주도 식물에 대한 연구는 80여년전인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日本人 市川三喜씨가 60여종의 식물을 채집, 발표했다었기 때문이다. 이후 주로 외국 학자들에 의해 채집, 조사연구되었으며, 우리나라 학자로는 1957년 '濟州道の 植物相'을 발표한 李德鳳博士를 비롯하여 鄭台鉉·장형두·도봉섭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조사연구된 바를 시대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 1905년 : 市川三喜
- 1906년 : E. J. Taquet · R. P. Faurie
- 1908년 : E. J. Taquet
- 1911년 : 石戶谷勉, 森爲三 · 下郡山誠
- 1913년 : 中井
- 1918년 : E. H. Wilson · 中井
- 1932년 : 小泉源一
- 1933년 : 竹中要
- 1941년 : 植木秀幹

---

5) 제주도 식물에 관한 研究史는 제주도 발행의 「濟州道誌」(上), pp.563~566을 참조하기 바란다.

- 1956년 : 李永魯
- 1957년 : 李德鳳, 洪元植
- 1958년 : 鄭英昊, 宋正浩
- 1964년 : 夫宗休
- 1965년 : 朴萬奎, 韓旭烈, 鄭台鉉
- 1968년 : 文化公報部 주관 종합학술조사  
(朴萬奎·李德鳳·李永魯·朴奉奎·李愚喆·夫宗休·安鶴洙 등)
- 1969년 : 文化財管理局 주관 楸子群島의 生物相 調査
- 1971년 : 日本 明治大學 학술조사팀 조사
- 1972년 : 朴正德
- 1973년 : 張楠基
- 1975년 : 金翰林
- 1977년 : 金文洪
- 1978년 : 梁奇千, 金文洪, 許仁玉

제주도 식물에 관한 言語學的 관심은 1962년 玄平孝博士의 《濟州島方言研究》資料篇에 240여종의 方言形 식물이름이 등재된 후부터이며 濟州島叢書 6권으로 간행된 石宙明의 《濟州島資料集》(1971)에 660여종의 식물이름이 보고되면서 고조되었다.<sup>6)</sup>

언어학적 관점에서 이 두 著書가 제주도 식물이름에 대한 자료가 됨은 두 말할 나위도 없으며, 이밖에 부수적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자료집에도 제주도 식물이름이 띄엄띄엄 나타나 있어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sup>7)</sup>

- 金榮教 : 濟州島民謠研究(上)(1965)
- 金榮教 : 玄容駿 : 韓國口碑文學大系9-1(1980), 9-2(1981), 9-3(1983)

---

6) 현재 제주도 식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위의 분으로는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의 김문홍교수, 제주신문사 서재철부장 등을 들 수 있다. 이 小論도 이 두 분의 업적에 힘 입은 바 크다.

7) 최근 제주도에서 「濟州植物圖鑑」이 간행되었다. 이는 제주도 식물에 대한 집대성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 玄容駿：濟州島巫俗資料事典(1980)
- 秦泰俊：健康과 民間療法(1979)
- 진성기：南國의 神話(1981)
- 金榮敦·玄容駿·玄吉彥：濟州說話集成(Ⅰ)(1984)

## B. 조사방법·조사지역

조사방법은 주로 면담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濟大 國文<sup>4</sup>의 年中行事로 이어지고 있는 學術調查와 함께 병행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미리 준비해 간 식물도감을 펴 그림 및 사진을 제보자에게 보여주고 확인한 후에 사진에 상응하는 方言形을 말하도록 유도하였다. 처음 몇 장은 그래도 제보자들은 자신 있게 말해 나가더니 나중에는 ‘그게 그것 같다’,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 준비해 간 식물도감이 흑백 사진으로 되어 있어 제보자들은 사진만 보고서는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원래 계획을 바꾸어, 아예 식물도감을 펴고 있는 길가에 있는 식물들을 직접 뜯어다 보여주며 방언형을 묻기도 하고, 간접적인 방법인 질문형식으로 방언형을 유도하였다. 예를 들면 ‘봄에 밭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식물은 어떤 게 있느냐’, ‘쟁기의 재료는 무엇을 쓰느냐’, ‘마소들이 즐겨 먹는 풀에는 어떤 게 있느냐’는 식이었다.

앞의 방법보다는 훨씬 많은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조사자 자신도 그 식물들의 共通語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어떤 경우는 부득이 方言形만을 傳寫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랐다(뒤에 제시되는 자료 2, 3이 바로 그런 類이다.).

제보자는 주로 부녀자를 택했다.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씩 등 같이 모여 앉게 하고는 그들끼리 서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주변 이야기, 농사 이야기로 화제를 바꿔 가면서 제보자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준비해 간 녹음기에 녹음하는 한편, 조사자는 물론 학생들도 받아쓰고 하였다. 나중에는 이 두 조사내용을 대조·보완하면서 정리하였다.

조사지역은 涯月邑 光舍里와 舊左邑 杏源里이다. 이 두 조사지역을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단지 學科의 學術調查 대상지였기 때문이다.

涯月邑 光舍里는 1983년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 동안을, 舊左邑 杏源里는 1985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조사하였다.

光舍里는 濟州市와 인접해 있는 涯月邑의 맨 동쪽 마을로 1里, 2里, 3里 등 3개 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발 120m~200m로 비교적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어 농업에만 전념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村老들에 의하면, 이 光舍里는 고려 중엽 이 부락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비신굴’과 북쪽에 위치한 ‘너븐절’ 등지에 주거하던 유목민들이 씨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전환될 무렵에 집단 거주하여 設村된 마을이라 한다. 그러나 설촌 연대개 꽤 오랜 편이다. 아직도 ‘너븐절’에는 고인돌이 5기나 있으며, 발을 깔다 가끔 기왓장, 석기 유물 등이 발견되는 사실로도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비교적 고지대이고 설촌 역사가 오래다는 사실만으로도 전형적인 농촌임을 알 수 있긴 하지만 光舍里 토지 활용상황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단위 : ha			
	전	답	임 야	과수원
광령 1 리	20.1	34.1	1,017	65.8
광령 2 리	58.3	0.2	658.9	26.6
광령 3 리	40.6	0.5	585	20.1

(1978, 하귀출장소)

반면 舊左邑 杏源里는 月汀里와 漢東里 사이에 위치한 부락으로 半農半漁이면서도 어업이 주가 되는 마을이다. 이는 杏源里 옛이름이 漁燈浦(어등개)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추가 가능하다.<sup>8)</sup>

8) 杏源里 地名 중에 바다에 얽힌 이름이 많은 것으로도 이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예를들면 ‘개맛되, 건난디, 흰돌코지, 민돌코지’ 등이며 ‘여’ 이름만도 ‘빚겨믄여·셋겨믄여·진겨믄여·고래머리여·모새여·만셔여·개우굴여·등굽은여·너븐여·오저여·닥거린여·큰여·알노린여·물탄여·조지여·툰여·석은여·상자린여·지방여·웃닿는여·베룩여·방앳여·숨은여·알생굴여·너븐테왓여·큰도고리여’ 등 실로 부지기수다.

설촌 역사도 꽤 오래되어 村老들은 족히 500년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마을은 과거 里名이 말해주듯 浦口가 좋아 멀리 일본에까지 해산물을 교역했다거나 잠수기선이 드나드는 어업전진기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지금도 동력선이 20여척이나 되어 주 수입원을 바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C. 자 료

여기에 제시되는 <자료1>, <자료2>, <자료3>은 共通語를 밝혔으나, 그러지 못했느냐로 나누고, 공통어를 밝히지 못한 것은 그 지역에서 조사된 자료만을 제시한다(물론 조사된 자료는 더 있지만 필요한 내용만을 제시하였다. 곡물이름 등이 제외되는 類에 속한다.).

<자료1> 杏源·光舍에서 조사된 식물이름

共用語	杏源(A)	光舍(B)
1. 해바라기	해바래기	해바라기쿨
2. 암눈비앗	눈벨레기	눈비아기쿨
3. 미나리	미내기	미나리
4. 순부기나무	숨베기	숨부기
5. 질경이	베채기	베채기
6. 노랑하늘타리	두레기	두레기
7. 개자리	개자리	개다리쿨
8. 부추	새우리	새우리
9. 귀리	대우리	대우리·대오리
10. 돌감나무	돌감낭	돌감낭
11. 메꽃	메마줄	미마
12. 차풀	자굴	자굴낭
13. 도깨비바늘	가메기바늘	가마귀바늘
14. 감부기	감비역	감비역
15. 동부	덤비	덤비
16. 땅파리	물뚝개	물뚝채
17. 할미꽃	할망꽃	하르비교장
18. 구지뽕나무	퀴가시	콧가시낭



共用語	杏源(A)	光令(B)
19. 쇠비름	웨비름	웨비름
20. 참으아리	저슨사리	저슬사리 · 우령 산
21. 바랭이	제완지	제한지
22. 참비름	츨비름	츨비름
23. 엉겅퀴	소앵이	소앵이
24. 상치	썸부루	썸부루
25. 팽나무	풍낭	폭낭
26. 벌꽃	진풀	진쿨
27. 망초	침 산쿨풀	침 상쿨
28. 등대풀	고름풀	등디풀
29. 쥐똥나무	갓짱낭	개짱낭
30. 보리수나무	볼렛낭	볼레낭
31. 상동나무	상동낭	삼동
32. 머루나무	멀리낭	멀리
33. 초피나무	제피낭	제피 · 웨피
34. 짚레나무	세비낭	세비
35. 메밀	모멀낭	므몰
36. 청미래덩굴	멩게낭	멩게
37. 까마귀쪽나무	구름비낭	구름비낭
38. 송악	송악낭	송악
39. 냉이	냉이	난시
40. 무릇	물릇	물웃
41. 사시락	사시레기	사스락쿨
42. 팔	능갱이팟	능갱이팟

〈자료2〉 杏源(A)에서 조사된 식물이름

43. 구렁페기	52. 닥남	61. 웨 풀
44. 꽃개기	53. 자구남	62. 콩풀
45. 방돌레기	54. 돌풀	63. 맛물꽃
46. 임노리	55. 장애덕풀	64. 배염꽃
47. 백테우리	56. 물풀	65. 쫄왓

48. 밧꼬지낭	57. 장덕풀	66. 배빌레기줄
49. 개범블낭	58. 던대풀	67. 뱀술
50. 진냘	59. 치장풀	68. 어움
51. 북담냘	60. 함박풀	69. 드림박

〈자료3〉 光晷(B)에서 조사된 식물이름

70. 논독	77. 정뱅이	84. 삼스새
71. 비늬	78. 가마귀술	85. 쉐아기
72. 역꺼	79. 썩밭쿨	86. 개자말
73. 절마니	80. 상고지	87. 너서리
74. 빈네	81. 북쿨	88. 새곰
75. 벤테	82. 생계쿨	89. 밤쿨
76. 쉐터럭	83. 물모작쿨	90. 암재쿨

※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일련번호를 부여했으며, 지역을 (A)(B)로 나눈 것은 海村, 中山村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다. 곧 (A)는 海村을 (B)는 中山村이 된다.

#### D. 지역간의 차이

C항에 조사,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지역간의 차이를 밝혀봄으로써 하위방언권으로 분류할 근거를 탐색할 단계에 왔다.

차이1 : (A)지역과 (B)지역의 두드러진 특징은 {-쿨}이라는 접사가 붙느냐, 붙지 않느냐에 있다.

보통 {-쿨}은 공통어의 {-굴}로써 ‘녕굴, 덩굴’의 {-굴}의 방언형으로, 이 {-굴}이 붙으면 식물의 줄기가 위나 옆으로 꼬이면서 뻗어 나가는 속성을 지닌 식물을 뜻한다. 7번의 ‘개자리’는 보통 ‘크로바’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콩과에 속하는 일년초로 그 줄기는 옆으로 꼬이며 뻗어 나가기 때문에 {-굴}의 속성을 잘 나타내 준다. 이 ‘개자리’가 (A)지역에서는 공통어와 동일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나 중산간 마을인 (B)지역에서는 {-쿨}이 연결된 ‘게라더쿨’로 말해지고 있다. (B)지역에서의 조사 당시 혹은 ‘게라디’가 ‘개자리’의 잘못된 발음이 아닌가 하고 거듭 확인하여 보았지만 ‘게라디’라고 하고는 {-

쿨이 연결되어 쓰였다.

이렇게 본다면 (B)지역의 79의 ‘뽕밭쿨’, 81 ‘복쿨’, 82, 83의 ‘생계쿨’, ‘물모작쿨’ 그리고 89, 90의 ‘밤쿨’, ‘암재쿨’도 앞에서 언급한 ‘녕쿨, 덩쿨’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식물들이다.

문제는 1, 2의 ‘해바라기쿨’이나 ‘눈비아기쿨’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에 있다. ‘해바라기’나 ‘익모초’를 뜻하는 ‘암눈비아’은 결코 ‘녕쿨, 덩쿨’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그냥 곧장 위로만 뻗어 올라갈 뿐으로 |~쿨이 연결될 수는 없다. (B)지역의 원어민들에 의해 |~쿨을 연결시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일종의 유추현상으로 보아진다. (B)지역의 생활영역은 들판이고, 7, 79, 81, 82, 89, 90들 처럼 |~쿨을 즐겨쓰는 언어습성이 있다고 본다. 들판에서 마주 대하는 식물들은 위로 대가 오르는 식물도 있지만, 줄기가 옆으로 뻗어 植生하는 식물도 또한 접하게 되니 |~쿨의 흔적인 |~쿨이 幻影으로 남아 있다가 ‘해바라기쿨’, ‘눈비아기쿨’로 분리워지는 게 아닌가 한다.

반면 (A)지역의 言衆들은 주된 생활영역이 바다이고 보면 어찌다 대하는 들판의 식물들은 다같이 |~풀의 종류로만 보이고, 또 단순논리에 의해 |~풀로 命名되어지는 것 같다. (A)지역에서 설명 |~쿨이 연결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풀이 연결되어 쓰인다는 점으로 입증된다. 27의 ‘망초’를 뜻하는 ‘청산쿨풀’이 바로 좋은 예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A), (B)지역의 차이는 |~풀이 연결되느냐, |~쿨이 연결되느냐에 따라 언어분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이는데 26의 ‘별꽃’이 (A), (B)지역의 특징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가끔 (A)지역에서 |~쿨 대신에 |~줄이 사용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줄기가 뻗어 나간다는 의미로서 |~줄이 쓰이는 것 같다. 11의 ‘메마줄’, 66의 ‘배빌레기줄’이 여기에 해당된다.

**차이2** :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지칭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지역이 다르다.

(A)지역에서는 각각 그 명칭이 세분화 되어 있어서 ‘나무’는 ‘나무’만을, ‘열매’는 ‘열매’만을 뜻하고 있는 반면, (B)지역에서는 부분이 전체를, 곧 ‘열매’만을 가지고 ‘나무’와 ‘열매’를 지칭하고 있다. 31의 ‘상동나무’를 명명

하기 위해서 그 나무 열매인 ‘삼동’만으로 대신하고 있으며, ‘멀리’가 32의 ‘머루나무’를, ‘세비’라는 열매 이름을 가지고 34의 ‘썰레나무’를 대신하고 있다. 33, 35, 36, 38등이 이 예에 속한다. 간혹 가다가 31의 ‘삼동’에 ‘열매’를 첨가하여 ‘삼동열매’로 ‘열매’만을 지칭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방법으로 35의 ‘맛돌’을 ‘쌀’을 뜻하는 방언형 ‘쌀’이 연결되어 ‘맛돌쌀’로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A)지역에서는 ‘삼동나무’를 ‘삼동낭’, ‘머루나무’는 ‘멀리낭’, ‘초피나무’는 ‘제피낭’, ‘썰레나무’는, ‘세비낭’, ‘메밀’은 ‘모밀낭’, ‘청머래덩굴’은 ‘멩게낭’ 등으로 불리워 (A)지역과 차이가 있다. 이는 (B)지역보다 (A)지역이 음절수가 길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으로 생활영역이 다름으로 인한 차이점이다. 곧 (B)지역은 중산간 지역으로 ‘들판’이 생활터전이 되는 반면, (A)지역은 거칠고 생명까지를 위협받는 ‘바다’로, 음절수를 길게 하여 분명한 의사전달을 꾀하고자 하는 심리현상으로 보인다.

四面이 바다로 둘러쌓인 제주도에서는 어쩔 도리 없이 거칠고 험한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거친 바다에서 상대방에게 충분한 의사전달을 위해서는 음절이 짧은 편보다는 길게 늘리어 발음하는 게 한층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차이3** : ‘나무’를 뜻하는 ‘남’이 (A)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점이다. (A), (B)지역이 설촌역사로 본다면 (B)지역이 앞서기 때문에 (B)지역에 {-남}形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sup>9)</sup> (B)지역에서는 유독 {-남}만 나타나는 반면, (A)지역에서는 {-낭}, {-남}形이 나타나 ‘송악남’, ‘북담남’, ‘진남’, ‘닥남’, ‘자구남’ 등이 나타남이 이채롭다.

**차이4** : (A)지역에서만 유독 {-꽃}이 연결되는 점이다. 63, 64의 ‘맛물꽃’, ‘베엇꽃’이 바로 그 예들이다. (A), (B)지역에서 17의 ‘할미꽃’만 각각 ‘할망꽃’, ‘하르비고장’로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B)지역에 {-고장}이 연결된 게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른다. ‘산 속의 깊숙한 숲’을 ‘꽃’이라 하는데(“고지

9) 玄平孝(1971); “濟州島方言 語詞의 層位學的 考察” 참조 (「濟州島方言研究」論放篇(1985)에 재수록).

남히레 갖저.”(깊은 산 속에 나무하러 갔어)와 같이 쓰인다.) ‘꽃’은 바로 (B)지역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造語法上으로 ‘고장’은 ‘꽃+양’으로, ‘고지’는 ‘꽃+이’로 분석이 가능하며, 같은 ‘꽃’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A), (B) 두 지역간의 차이를 간단하게 일별해 보았다.

아다시피 (A), (B) 두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北濟州郡으로 동일하고 그러기 때문에 文化行態上으로도 山北이라는 同質의 영역에 속한다.

이제껏 제주도를 ‘제주도방언’이란 명칭 하나로 묶어 사용하고 있는 게 우리 方言學界의 관례다. 그러면 (A), (B) 지역적 차이를 무시해 버리고 상위개념인 ‘제주도방언’이란 포괄적인 명칭으로 불리워져도 무방한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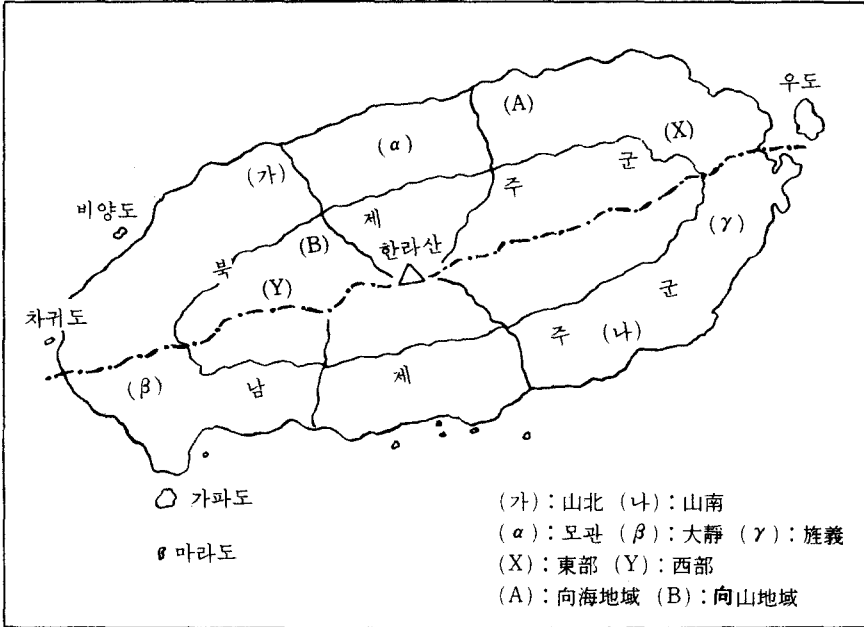
근래에 들어 제주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은 학문적 성격에 따라 그 나름대로 분류기준을 정하여 제주도를 몇 개의 작은 단위로 조심스레 나누어 보는 시도를 펴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山南과 山北,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경계로 하여 그 동쪽을 東部, 서쪽을 西部로 한다거나, 아니면 역사적 관점에 따라 모관, 大靜, 旌義 등으로 분리, 도출된 현상을 설명하고들 있다.

이 (A), (B) 두 지역간의 차이는 만일 나누어 본다면 두번째 기준인 東·西部의 차이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東·西部 기준만 놓고 설명할 때 과연 山南의 東部와 (A)지역이, 山南의 西部와 (B)지역이 꼭 맞아 떨어질까(물론 지금의 단계에서는 확정적으로 그렇다 하고 단안을 내릴 단계는 아니지만 한번 개연성만을 제시한다.) 하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A), (B)지역간의 차이를 다른 데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A)지역은 海村이요, (B)지역은 中山間 마을이다. 곧 (A) 지역은 바다로 향하여 생활하는 부락이라고 한다면 (B)지역은 山을 향한 마을이다. 그러니 자연 (A)지역은 ‘바다’가 그네들이 생활터전이 되며, (B)지역은 ‘들판’이 터전이 되고 있다. 생활터전에 따라 바다로 향했느냐, 山으로 행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인데 잠정적으로(A)지역 방언을 向海地域語로 하고, (B)지역을 向山地域語라 해 둔다.

‘제주도방언’에 대하여 하위방언권을 구획하게 된다면 이제까지의 기준 외에 일정한 表高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경계선 그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좀 복잡한 하위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 E. 문헌어와의 관계

여기서 문헌어라 하면 구체적으로 《鄉藥救急方》을 말한다.

이 《鄉藥救急方》은 현재 알려져 있기로는 日本 宮巾省 書陵部に 소장되어 있으며 國立中央圖書館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고 있다.

이 책은 고려 때 大藏都監에서 간행한 것을 1417년 7월에 尹祥의 跋을 붙여 崔自河가 義興郡에게 重刊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자료를 제시하기로 한다(여기에 사용된 일련 번호는 南豐鉉의 《借字表記法研究》의 번호를 말한다.).

漢語名	借字表記	李德鳳 <sup>10)</sup>	南豐鉉 <sup>11)</sup>	濟州島
1. 葛根	叱乙根	취불취	즐불취	치불취
2. 乾藕	蓮根	연근	년근	연불취
4. 京三稜	結叱加次根	깃가지불취	미긱갓불취	(절마니)
7. 苦蓼	板麻	너삼	널삼	너삼
8. 苦瓠	朴	박	박	죽
9. 括囊	天叱月乙	하늘볼	하늘톨	하늘래기
10. 槐	迴之木	회의나모	희나모	훼낭
11. 蕎麥	木麥	모밀	모밀	미밀
12. 韭	厚菜	후취	후취	세우리·정구지
17. 芎窮	蛇休草	빅옴말풀	빅암말이풀	벤페기·베염푸기
20. 桔梗	道羅次	도랏	도랏	도라지
24. 菰子	月老	달노	달뢰	마늘쫑
33. 大麥	包衣	포래	보릭	보리
35. 大蒜	夕汝乙	마닐	마닐	콤포대사니
39. 馬齒莧	金非陵音	쇠비름	쇠비름	쉐비름
41. 麥門冬	冬乙沙伊	겨울사리	겨울사리	저술사리·저순사리
45. 無患	天背也只木實	부배야기	부늬여기 나모여름	도육낭·모과낭
50. 薄荷	芳荷	방하	방하	박하
51. 半夏	雉矣毛老邑	쇠모름	씨의모름	반하
61. 蒟蒻	馬尿木	말오줌나모	물오줌나모	물오줌·개삼등
74. 苾菜	無蘇	무소	무수	무수·늬뻬
88. 牛膝	牛膝草	쇠무릎	쇼무릎풀	물막작쿨·우슬초
108. 地榆	苳菜	외늬물	외늬물	웨늬물
117. 荒蔚	目非也次	눈비얏	눈비얏	눈비아기쿨
122. 通草	伊屹鳥音	이홀음	이홀음	음줄
126. 葶麻子	阿叱加伊實	아즈가리	아즈가리베	피만지
134. 黃耆	甘權麻	두너삼	든널삼	든너삼

10) 李德鳳(1963) ; “鄉藥救急方”의 方中鄉藥牧研究, 「亞細亞研究」 6-2호, pp.170~213.

11) 南豐鉉(1981) ; 「借字表記法研究」, pp.27~148.

이다. 원전을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 ‘天叱月尹’로 보고 ‘하늘드리’로 봄이 타당할 것 같다. 이렇게 ‘하늘드리’로 본다면 방언형인 ‘하늘래기’에 상응한다. 우리 국어에 ‘ㄷ’과 ‘ㄱ’은 서로 넘나든다는 호전현상이 있어 이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0, 11은 별문제가 없다.

12의 ‘후취’는 제주도에서 ‘세우리’ 또는 ‘정구지’로 나타난다. 원래 ‘𪛗’는 ‘ㄱ’이 ‘ㅎ’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俗音이 ‘후’였기 때문이라 한다.<sup>13)</sup> Karlgren의 《漢字古音辭典》에 ‘厚’도 [xou], [γəu]로 나타남에 주의 하면서 ‘후취’보다는 방언형 ‘세우리’ 또는 ‘정구지’가 더 오래된 모습으로 보고자 한다.

17은 ‘蛇’의 방언형인 ‘베염’이 연결된 ‘베염꾸기’로 나타나며 가끔 ‘벤폐기’가 나타남이 이채롭다. ‘물뱀’을 보통 ‘물폐기’라고 하는데 ‘벤폐기’의 {-폐기}가 ‘뱀’과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첩어의 속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어떻게 보면 {-폐기}는 ‘포기’로 볼 수도 있다.).

20은 현대어가 그냥 쓰인 예이며, 24는 형상을 그대로 본따 ‘마늘쫘’으로 불러주고 있다.

35의 大蒜은 그냥 ‘마늘, 마늘’ 등으로 해독되어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콤포대사니’로 한자어명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대사니’는 한자어 ‘大蒜’에 접사 {-이}가 연결된 형태로 본다면 앞에 붙은 {콤포-}이 문제가 된다. 생각하기론 이 {콤포-}은 {갑}에서 온 말이 아닌가 한다. {갑}의 의미로 방언에서는 ‘꺾’이 사용되는데 보통은 ‘경계선’의 의미로 쓰인다(꺾치지다-어떤 경계선으로 나누다, 분리하다.). 나아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꺾어서-분별력 없이)으로 확대되어 쓰이기도 한다. ‘마늘’의 속성으로 본다면 여러 갑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콤포-}의 의미와 부합된다. 제주도 서부에서 방언을 조사할 때 ‘콤포대사니’ 대신에 ‘췌개비’라는 어휘가 조사되었는데, 이때 ‘췌’은 ‘많다’의 의미로 본다면, ‘개비’는 ‘갑’이 되어 ‘갑이 많은

13) 南豐鉉(1981); 「借字表記法研究」, p. 41.

이 厚菜가 13세기에는 ‘후취’인데 15세기를 거치면서 ‘부취(付菜)’로 개신되어 현대국어에서는 ‘부추’로 남아 있어 어원을 완전히 잊혀졌다.



1, 2는 방언과 큰 차이가 없다. ‘취’, ‘즐’ 대신에 그냥 ‘칙’이 쓰여 ‘근이 없음’이 특징이다. 이런 특징은 7 ‘너삼’에서도 볼 수 있다. 1의 ‘根’은 ‘불휘’로 해독했다면 당연히 2도 ‘연근·년근’이 아니라 ‘연불휘’로 함이 타당할 것 같다. 즉 音讀이 아니라 訓讀을 요구한다.

4는 ‘매자기’라는 공통어에 대응하는 명칭으로 ‘밧가지’, ‘밧जू갓’으로 해독하고들 있다.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절마니’가 아닌가 한다. 鄉名 ‘結叱加次根’의 ‘結’이 音讀의 결과 ‘결’보다는 ‘절’로, 제주도에서는 ‘ㄱ>ㅅ’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지기 때문이다(결다:졸다, 겨를:저를, 겨우:제우, 접이불:접이불, 결:저곳, 결단:절단, 결박:절박 등이 그 예이다.).

7의 苦參도 ‘너삼’으로 별문제가 없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南豐鉉 교수의 ‘널삼’이 좋을 것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제주도 地名에 ‘널개’(板浦:한림읍 판포리)가 있어 ‘板’이 ‘널’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漢名 그대로 한다면 ‘쓴널삼’이 됨을 중시할 때, ‘쓴널삼’이 아닌 ‘쓴너삼’으로 불리워지고 있어 ‘너삼’쪽을 취하기로 한다.

8의 ‘苦瓠’은 특이한 예로 나타난다. 두 분 다 같이 ‘朴’을 ‘박’으로 읽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유독 ‘콧’으로 나타나고 있다

南豐鉉 교수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고 ‘박’으로 읽었다. ‘박’이 ‘콧’으로 변화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가 문제다.

h>k의 변화는 다른 지방 곧, 月城地域語에도 이런 현상이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sup>12)</sup> 이에 따르면 ‘바위, 올해, 씨름, 오리, 고리’들이 각각 [panku, olke, silkum, olki, kolki]로 나타난다고 한다. 중세어로 한다면 그 각각은 ‘바회, \*홀회, 힐흙, 울히, 골회’들로 다같이 ‘h>k’으로 변화됨을 보여주는 실례들이다. 물론 음성적 환경으로는 ‘非語頭音節’이라는 제한 사항이 뒤따르긴 하지만 고어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에도 해당되리라 보인다. ‘할퀴다, 허구리, 해식다, 횡경막, 흰떡, 흰밥, 흰죽’ 등이 각각 ‘콧죽다, 굴침, 계식다, 간썸, 곤떡, 곤밥, 곤죽’으로 나타나 ‘h>k’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예가 있기 때문이다.

9의 ‘括囊’의 해독로 ‘하늘불, 하늘톨’이 있다. ‘하늘불’로 보는 것은 ‘天原乙’의 ‘原’을 ‘불’로 본 결과이며, ‘하늘톨’로 본 것은 ‘天叱他里’로 본 까닭

12) 崔明玉(1982);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pp.76~80.

마늘'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견은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9의 馬齒莧은 같고, 41의 藜門冬도 비슷하다. 'ㄱ'대신이 'ㄴ'이 나타남은 방언적 특성이며, 'ㄴ'이 나타남이 특이하다.

45의 無患을 '모과낭'이라고도 하는데, 약간의 차차에서 온 듯하고(모과나무가 따로 있으니깐) '도육낭'도 鄉名하고 배치되는 듯하다.

50은 '방하' 대신에 '박하'라는 한자어 그대로 쓰고 있다. 이런 예로는 51의 '반하', 126의 '피만지'가 될 것이다. 88의 '물막작쿨' 대신에 '우슬초'가 쓰임도 여기에 포함된다.

61이 薊薊을 '말오줌, 물오줌'으로 해독되는 것은 '삼동'과 비슷하다 하여 '개삼동'으로 쓰임이 있어 흥미롭다. 물론 [개-]는 '진자의 것이 아니라'는 접사이다.

74는 보통 '늪뻬'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나무처럼 생긴 식물이라는 뜻으로 '늪뻬' 것이다('늪'은 '나무(木)'의 다른 어휘로, '뻬'는 식물에 붙는 접사다.)'

반면 '무수'도 사용되어 고어형을 유지하기도 한다. 이미 상식화된 이야기지만 'ㅅ'이 '△>○'로 변화되어 공통어에서는 '무우'로 변화되었지만, 방언에서는 그대로 'ㅅ'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88의 牛膝은 '소' 대신에 '말(馬)'로 사용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무릎의 마디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방언형인 'ㄷ작'이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108은 방언형이 '웨노물'이어서 발음상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마찬가지로 117의 芫薺도 '비얏' 또는 '비얏' 대신에 '비아기'로 'ㄱ'이 나타남과 더불어 단모음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22는 '이홀음'이 축약된 '움'에 '덩굴·녕굴'에 해당되는 [줄]이 연결되어 쓰이고 있다.

이상 우리는 《鄉藥救急方》에 나타나는 鄉名과 이를 해독한 두 학자의 내용을 방언형과 비교하면서 필자의 단상을 서술하였다.

고어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형태상으로 볼 때 자명해진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더 오래된 어형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물론 이같은 결론은 추론이긴 하지

만.)

또 한자어를 그냥 써 方名을 대신하고 있을때도 특이한 사항(해독 결과만을 놓고 볼 때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 Ⅲ. 마 무 리

이상 간단하게 조사된 몇 개의 어휘를 가지고 제주도 식물어휘에 대한 고찰을 시도해보았다.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제주도 식물어휘를 놓고 살펴볼 때 지역적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① {~쿨이 붙느냐 붙지 않느냐 하는 점, ②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지칭하느냐, 아니면 부분(곧열매)을 지칭하느냐 하는 점, 이는 곧 음절수와 관계가 있었다. ③ {뜻이 연결되느냐, 아니냐, ④ '뉘'형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마땅히 '제주도방언권'을 하위범주로 나눌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2. 이 준거를 가지고 하위구분한다면 일정한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산쪽으로 향한 마을의 언어를 '向山地域語'로, 바다로 향한 마을의 언어를 '向海地域語'로 명명해두고자 한다. 하나의 식물어휘만 가지고 이렇게 向山地域語니 向海地域語니 하는 구분에는 크나큰 위험이 뒤따르는 문제이긴 하지만 한번 개연성만을 탐색해본 시론에 불과하다. 후일의 성과를 기대하는 수밖에는.

3. 13세기 언어로 보이는 《鄉藥救急方》의 鄉名과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자어 명칭을 그대로 쓴다거나 제주도 특유의 방언형을 갖고 있어 앞으로 면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제주도방언에 대한 또하나의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해 본다.

## 參 考 文 獻

- 金敏洙(1964) ; 「新國語學」, 一潮閣.
- 金亨奎(1975) ; 「增補 國語學概論」, 一潮閣.
- 南廣祐(1966) ; 「古語辭典」, 一潮閣.
- 南堂鉉(1981) ; 「借字表記法研究」, 禮大出版部.
- 方鍾鉉(1963) ; “鄉藥名研究”, 「一簣國語學論集」, 民衆書館
- (1982) ; 「古語村料辭典」, 弘文閣.
- 石宙明(1946) ;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
- (1971) ; 「濟州島資料集」, 寶晉齋.
- 安秉瀾(1978) ; 「村家校急方の 鄉名에 대하여」, 「언어학」 3, 한국언어학회.
- 劉昌惇(1964) ; 「李朝語辭典」 延大出版部.
- 李基文(1961) ;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 李德鳳(1963) ; “鄉藥救急方の 方中鄉藥目研究”, 「亞細亞研究」 6권 1호, 2호,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 崔鶴根(1959) ; 「國語方言學序說」, 精研社.
- 李崇寧(1967) ; “韓國方言學史”, 「韓國文化史大係」5, 高大民族文化研究所.
- 李翺燮(1981) ; 「嶺東嶺西의 言語分化」, 서울대 출판부.
- (1984) ; 「方言學」, 民音社.
- 濟州大(1984) ; 「學術調查報告書」 8, 제주대 국문과·국어과.
- 崔明玉(1981) ; 「月城地域語의 音飲論」, 영남대 出版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1) ; 「韓國方言調查質問紙」, 정신문화연구원.
- (1981) ; 「方言」 5, 정신문화연구원.
- 한글학회(1975) ; 「救急方」(上·下), 한글학회.
- 玄平孝(1962) ; 「濟州島方言研究」(資料篇), 精研社.
- 河野六郎(1945) ; 「朝鮮方言試攷」, 東都書籍株式會社.
- Karlgren(1975) ; 「漢字古音辭典」, 亞細亞文化社.